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김우전 광복회장, 여러 단체 지도자, 회원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이 6.25 53번째 기념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안보와 질서를 수호해주는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국가를 외국에 빼앗겼을 때를 생각해보면, 국가의 소중함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희생해서 이만한 국가를 잘 간수해왔습니다. 또 세계 12번째 덩치를 가진 튼튼한 국가를 만들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계 10강 선진국의 번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굳이 여러분을 초청해 모신 뜻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과 함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기 위해서이고, 젊은 아이들에게도 우리 역사에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기회에 준비해 두신 말씀 잘 듣겠습니다. 뜻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